

KIA 선두 지킴이... '느림의 승부사' 임기영·정용운



임기영

**140km 초반대 공으로 승승장구
위기때마다 '난세의 영웅' 역할
'느림의 미학'으로 마운드 지배**

'느림'으로 써 내려가는 KIA 타이거즈의 꾸준한 1위 행진이다. KIA는 '4번 타자' 최형우, 돌아온 '키스톤 콤비' 김선빈·안치홍, '복덩이 이적생' 이명기·김민식, '센터라인의 중심' 배나디나, '10승 선적' 헛터 등을 앞세워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난세의 영웅'이 있다. 올 시즌 출발 전만해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사이드암 임기영과 전력 외 인물이었다던 좌완 정용운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느림의 미학'으로 마운드를 슬그머니 물들이고 있는 두 선수다. 말 그대로 임기영은 '난세의 영웅'이었다. 준비했던 선발진 카드가 모두 무산되면서 기회를 얻은 임기영은 기대 이상의 활약 속에 1.82의 평균자책점으로 7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2승은 무려 완봉승이다. 임기영에 이어 또 다른 '난세의 영웅'이 등장했다.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1.9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용운. 선발로는 두 경기에 나오는 데 그쳤지만, 이 두 경기에서 거둔 2승의 가치가 컸다. 정용운은 팀이 예상치 못했던 스윙패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 연달아 등판해 '깜짝 승리'로 1위 수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력한 활약의 두 사람이지만 이들은 강력한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는 아니다. 임기영은 오히려 상무 시절보다 4~5km 가량 스피드가 줄었다. 하지만 임기영의 전략이다. 임기영은 "스피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스피드 보다 중요한 것은 제구다. 제구에 신경을 쓰겠다"며 자신의 2017시즌 로드맵을 밝힌 적이 있다. 상무 시절 140km 중반을 찍던 직구 스피드는 140km 초반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더 정교해진 직구와 예리한 각의 체인지업으로 상대를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 여기에

스피드를 더 낮춰 폭 떨어지는 커브까지 보여준다.

시즌 두 번째 완봉승을 기록했던 지난 7일 한화전 직구 최고 스피드는 141km였다. 이날 임기영은 체인지업(50개·116~125km)을 가장 많이 던졌고, 직구(46개), 커브(15개·114~123km), 슬라이더(4개·127~131km), 투심(1개·131km)을 구사했다.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제구다. 116개의 공 중 83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 넣었다. 지난 5월 20일 두산 유희관이 KIA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뒀을 때, 122구 중 85구를 스트라이크존에 던진 것과 비슷하다.

좌완 정용운도 유형은 비슷하다. 느린 직구와 직구와 비슷하게 나오다가 흘러나가는 체인지업으로 주로 승부를 한다. 정용운은 자신의 최고 이닝(7) 기록을 쓴 지난 11일 넥센전에서 43개의 직구를 던졌다. 최고 스피드는 141km. 다음으로 27개의 체인지업(128km)을 던졌고, 슬라이더(129km)와 커브(106~114km)가 각각 27개와 11개씩 기록됐다.

전략적으로 스피드를 늦춘 임기영과는 조금은 다른 '느림'이다. 정용운은 원래 공이 빠른 편이 아니다. 제구도 수준급은 아니다. 정용운은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8개의 볼넷과 1개의 몸에 맞는 볼을 내줬다. 11일 등판 당시 볼(42)과 스트라이크(65) 비율을 봐도 임기영과는 차이가 난다.

정용운은 대신 자신의 약점보다 장점에 주목, 타이밍으로 상대를 혼돈시키고 있다. 11일 위력적인 체인지업과 함께 상대를 허를 찌른 무기는 커브였다. 첫 선발등판이었던 삼성전에서 3개의 커브(104-109km)를 던졌던 정용운은 이날은 11개로 비중을 높였다. 최저스피드는 106km.

11일 경기가 끝난 뒤 정용운은 "커브를 하나씩 던지면서 타이밍을 봤다. 나중에는 스트라이크 존에도 잘 들어가서 편하게 승부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현종과 팻딘의 빠른 공에 공격으로 반응했던 넥센 타자들은 이날 정용운의 '느림'에 타이밍을 뺏기며 3안타를 뽑아내는 데 그쳤다.

한때 타이거즈는 리그를 대표하는 '강속구 군단'이었다. 하지만 2017시즌에는 '느림의 미학'이 타이거즈 마운드를 움직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용운

'도하 참사' 슈틸리케 결국 경질

축구협회 기술위원회

이용수 위원장도 동반사퇴

차기 감독 국내파 유력

한국 축구의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지자 결국 대한축구협회가 칼자루를 휘둘렀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15일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제5차 기술위원회를 열고 성적과 경기력 부진의 책임을 물어 올리 슈틸리케(63·독일) 감독의 경질을 결정했다. 이날 기술위원회에는 12명의 기술위원 가운데 두 명이 불참했다.

이용수 기술위원장은 "슈틸리케 감독과 상호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기술위원장을 그만두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차기 사령탑은 지금 상황에서 국내 지도자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감독은 앞으로 치를 최종에선 2경기를 포함해 러시아 월드컵 본선 무대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위원회는 오는 8월 31일 예정된 이란과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이 열리기 전까지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뽑을 예정이다.

지난 2014년 9월 24일 취임한 슈틸리케 감독은 2015년 1월 아시안컵 준우승과 그 해 8월 동아시아컵 우승의 업적을 이루며 역대 대표팀 최장수 사령탑 기록을 세웠지만,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휘봉을 놓게 됐다.

슈틸리케 이전 대표팀 최장수 감독 기록



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의 2년 6개월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대표팀을 이끄는 동안 총 27승5무7패(63득점·25실점)를 기록했다. A매치로 인정을 받지 못한 2015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전(2-0승)과 2016년 3월 쿠웨이트와 월드컵 2차예선 몰수승(3-0승)을 빼면 25승5무7패가 된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슈틸리케 감독 경질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드러난 대표팀의 극심한 부진이다.

대표팀은 월드컵 최종예선 A조에서 4승1무3패(승점 13)로 이미 본선행을 확정 한 이란(승점 20)에 이어 조 2위다. 하지만 3위 우즈베키스탄(승점 12)에 승점 1차로 바짝 쫓기면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에 비상이 걸렸다.

슈틸리케 감독은 최종예선을 치르면서 홈 경기에서 합계로 4승을 챙겼지만, 원정에서 1무3패로 맥이 무너졌다. 여기에 최종예선 기간 내내 단순한 전술과 허술한 조직력을 보완하지 못해 거센 경질 여론에 휩싸였다. 특히 대표팀은 지난 14일 약체인 카타르와의 원정경기에서 2-3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한국이 카타르에 패한 것은 33년 만이다.

기술위는 지난 3월 중국 원정경기에서 0-1로 패하고 돌아온 뒤에도 슈틸리케 감독의 거취를 논의했으나 '대안 부재'를 이유로 유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믿었던 슈틸리케 감독이 카타르와 경기에서도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뼈아픈 패배를 당한 탓에 기술위도 '유수를 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골절상 손흥민 이번주 수술... 회복 4주 소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 카타르 원정에서 오른팔이 부러진 손흥민(토트넘)이 이번 주 수술을 받는다. 회복에 4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손흥민이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오른팔의 전완골(요골·척골)을 구성하는 요골이 부러진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번주 수술을 받고 나면 회복에 4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14일 치러진 카타르와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에서 전반 30분께 공중볼을 다투다가 중심을 잃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오른팔로 땅을 쳤었다.

손흥민은 14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이후 곧바로 경희의료원으로 이동해 정밀검진을 받았고 요골 골절로 판명돼 수술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추신수 10경기 연속 출루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3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이상)를 치며 10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

추신수는 15일 열린 2017 메이저리그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방문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쳤다.

첫 타석에는 볼넷을 맞았다. 추신수는 1회초 상대 선발 프란시스 마르테스의 초구를 공략해 잘맞은 타구를 보냈지만, 1루수 직선타로 돌아섰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행운이 따랐다. 추신수는 마르테스의 시속 153km 직구를 건드렸고, 공이 투수 옆을 스쳤다. 느린 타구였지만 2루 근처로 이동한 시프트를 펼치던 휴스턴 3루수 마윈 곤살레스가 공을 뒤로 흘렸다.

기록원이 실책이 아닌 안타로 판단하면서 추신수는 4일 휴스턴전부터 시작한 연속 경기 출루 행진을 10경기로 늘렸다.

5회 1사 만루 기회를 놓친 건 무척 아쉬웠다. 추신수는 타점 기회에서 시속 135km 커브를 톡 건드려 3루수 뜬공에 그쳤다. 하지만 추신수는 8회 상대 볼펜 토니 시프의 시속 147km 직구를 공략해 중전 안타를 쳤다. 13일 휴스턴전 이후 2경기 만에 나온 시즌 13번째 멀티히트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53에서 0.257(202타수 52안타)로 올랐다. /연합뉴스

류현진 18일 신시내티전 선발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홈런 3방의 아픔을 안긴 신시내티 레즈를 상대로 설욕전에 나선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신시내티와 방문 3연전 둘째 날 경기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올해 류현진은 11경기에서 57이닝을 소화하며 2승 6패 평균자책점 4.42로 고전하고 있다. 어깨(2015년)와 팔꿈치(2016년) 수술 이후 '재활 시즌'을 치르는 류현진은 호투와 부진을 반복하고 있다.

6월 워싱턴 내셔널스전에는 최고 시속 93.8마일(151km)을 찍으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12일 신시내티전에서는 최고 시속 90마일(145km)조차 넘기 힘들어졌다.

이미 한 차례 선발전에서 강등됐던 류현진에게 이번 신시내티전은 선발진 잔류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일전이다.

류현진은 안방에서 열린 12일 신시내티전에서 4이닝 6피안타 5탈삼진 4실점으로 고전했다.

허용한 안타 6개 중 3개는 홈런이었다. 류현진은 애덤 듀발, 스티브 세벨라, 조이 보토에게 연달아 홈런을 내주고 5회를 채우지 못했다. 벌써 올해만 두 번째 한 경기 3피홈런이다.

지금 류현진에게 필요한 건 선발투수의 필수 덕목인 이닝 소화다. /연합뉴스

반기문 前 총장 IOC 윤리위원장 내정

국제스포츠계 저승사자' 역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는 IOC 위원들의 비위를 자체 조사하는 IOC 산하 독립 기구다.

IOC는 14일(한국시간) 반기문 전 총장을 차기 IOC 윤리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9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IOC 총회 투표에서 최종 선출되면 반 전 총장은 4년간 IOC 윤리위원회를 지휘한다.

IOC 윤리위원회는 IOC 역사상 가장 큰 비리로 불리는 '솔트레이크시티 스캔들'이 터진 1999년 올림픽 운동에서 윤리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윤리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대부분은 현역 IOC 위원이 아니어야 하고, 최소 2명 이상은 스포츠와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 현재 윤리위원장은 세네갈 헌법재판소장 출신 유수파 은디아예다.

윤리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IOC 윤리 강령을 지속해서 강화·개선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IOC 위원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IOC 집행위원회와 IOC 총회에 징계를 권고한다.

대한체육회 국제교류부 한 관계자는 "IOC가 클린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윤리위원회의 위상은 독립적이며 산하에 감사팀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도 상당하다"며 "위원 전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IOC 위원들의 비위를 자체 조사하는 IOC 윤리위원회 차기 위원장에 반기문 전 총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를 IOC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것도 특이하다"고 평했다.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이 TV·라디오 분과위원장을 지낸 이래 한국인이 IOC 기구의 수장이 된 건 반 전 총장이 두 번째"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